

K-Design + = 새로운 변화, 미래를 여는 힘
New Changes Creating the Future



D E S I G N K O R E A 2 0 1 3

전시개요



창조경제의 중심, 디자인이 우리의 미래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은 소비자 중심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생산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담보하던 시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도래하였습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Design, the Core of Creative Economy is Our Future

The paradigm of the world market is swiftly changing to a customer-oriented one in the 21st century. If the 20th century was an era where corporate competitiveness was based on their production capability, the 21st century is an era where one can only survive when creating and produc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demanded by consumers. In other words, a new industrial trend has been introduced: 'creative economy' leading the economic comeback.

The creative economy is a new economic strategy that introduces new industries and markets by integrating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of the public with science and ICT, and provides more job openings by strengthening already existing industries. And the future of Korea's economy depends on how we understand and actualize the concept of 'creative economy.'

창조적 융합, 창의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그 중심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디자인을 전산업분야에 어떻게 융합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이번에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금번 '디자인코리아2013'은 디자인을 플러스한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 행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KOREA
2013

The key element to creative convergence and creative innovation is 'design.' It can be said that the future of Korea relies on how design converges with different industries, and how we make better use of design.

A platform where people can communicate and share their opinion and idea on the economic value and social role of design will be held in Gwangju. It is without doubt that 'DESIGN KOREA 2013' will show us a blueprint of how design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I hope you will experience for yourself the present and future of design, the driving force of Korea's economy. Thank you.

윤상직 YOON Sangjick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아시아 디자인 중심도시, 광주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인 '디자인코리아2013' 행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4일간 빛고를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여러분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디자인코리아는 한국디자인 우수성을 홍보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아시아 디자인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과거 전시 중심이었던 행사와는 달리 기업비즈니스(B2C, B2B)를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 국내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Gwangju, Design Hub of Asia

It is of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at 'DESIGN KOREA 2013,' the largest design business festival in Korea, is to be held in Gwangju from October 10, 2013 for 4 days. And, along with the 1.5 million citizens of Gwangju, I welcome the design companies and buyers from Korea and abroad to 'DESIGN KOREA 2013.'

Celebrating its 11th year, Design Korea was launched in 2003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design and to provide a platform to share the latest design trend.

DESIGN KOREA 2013 will be held in Gwangju, the design hub of Asia, making it the 2nd time to be held in a city other than Korea's capital. Unlike past exhibition-oriented events, this year's event will focus on producing design business (both B2B and B2C), promoting the design capacity of Korean companies and creating more business opportunities.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모티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내 디자인산업의 비즈니스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2년마다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13.9.6~11.3)' 기간에 열려 서로 시너지 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로 17개국 작가 300여명이 참여하여 예술과 산업의 조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를 향한 디자인산업 생산기지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빛고를 광주'에서 펼쳐지는 '디자인코리아2013'을 통해서 디자인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와 함께 하실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KOREA
2013

I have no doubt that DESIGN KOREA 2013 will become a business platform for the Korean design industry through its various progra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viding new business motives by sharing the latest design trend with others.

Especially, DESIGN KOREA 2013 will be held side-to-side to the biennial 'Gwangju Design Biennale (Sept. 6 - Nov. 3, 2013),' bringing about synergy effect to both events. The Gwangju Design Biennale, celebrating its 5th anniversary,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Anything, Something' with some 300 artists from 17 countries taking part.

I hope that you will all enjoy the world of design at 'DESIGN KOREA,' held in Gwangju, a city striving to become the next design hub of Asia.

Once again, I welcome you all to DESIGN KOREA 2013. Thank you.

강운태 KANG Untae

광주광역시 시장 Mayor, Gwangju Metropolitan City

21세기 융합의 중심, 디자인

21세기는 감성과 직관, 창의와 상상력이 보다 중시되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디자인은 이러한 융합의 중심에서 기술과 인간, 산업과 산업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국민적 디자인의 문화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디자인코리아는 지난 10여 년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해 열린 '디자인코리아 2012'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엑스코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을 동원하며 지역 디자인 산업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디자인의 밤' 행사를 통해,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의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Design, Center of Convergence of the 21st Century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convergence where sensibility, intuition, creativity and imagination are emphasized. And design plays the role of connecting technology and mankind, and industries with different industries.

DESIGN KOREA was first launched in 2003 to enhance the awareness of design values and to spread a national design culture. And for the past decade, it has continued to grow repeatedly displaying change and innovation.

'DESIGN KOREA 2012,' which was held in Exco, Daegu, brought about the most number of persons to the event since the opening of Exco, contributing to initiating the vitalization of the local design industry. Especially, through the 'Design Night' event, held to promote a bonding amongst the Korean design industry, provided an opportunity to form a consensus on establishing a sound design ecosystem. I have much expectation to 'DESIGN KOREA 2013,' which is to be held in Gwangju, following Daegu to promote a balance in the development of

디자인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의 바통을 이어 받아 빛고를 광주에서 개최되는 '디자인코리아 2013'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큼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관련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디자인 도시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디자인코리아의 노하우와 광주광역시의 디자인 발전 의지가 결집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략적 홍보의 장이 될 것입니다.

K-DESIGN의 현재이자 미래인 '디자인코리아 2013'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디자인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디자인의 가치와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design industry. Gwangju has established grounds for design development, hosting the Gwangju Design Biennale for the past years. And, being the host city of the 2013 International Design Alliance Congress, it is attracting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next design hub.

This year's event will display the know-hows of DESIGN KOREA and Gwangju's strong will towards design development, making it a strategic platform to promote the brand value of Korea as well as Korea's design excellence.

I ask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to 'DESIGN KOREA 2013,' the showcase for the present and future of K-Design. And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value of design and the importance of the design industry through this design festival. Thank you.

이태용 LEE Taeyong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인, 미래의 성장동력

이제 세계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디자인의 기본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 감동을 주고, 트렌드를 따르려 하기보다는 리드하려 노력하고, 고정관념을 타파해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디자인이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와 모든 산업을 리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디자인코리아 2013]을 통해 디자인 산업화 원년의 해로 거듭 날 것입니다.



Design , the Future Growth Engine

The world is now facing an era where design rules. Henc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secure a design foundation and capacity, to affect the heart of companies and persons, to lead the trend and not follow it, and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change our way of thinking.

This will make design become the next growth engine and create various added values, leading not only the local economy but all industries.

This year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Gwangju to promote design industrialization through 'DESIGN KOREA' and 'Gwangju Design Biennale'.

이번에 개최되는 [디자인코리아 2013]은 지역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 전시행사로 국내외 바이어가 참석하는 디자인비즈니스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며,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 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과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아시아 디자인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KOREA 2013' will be an industrial festival with local industries taking part as well as a design business event, inviting design buyers from Korea and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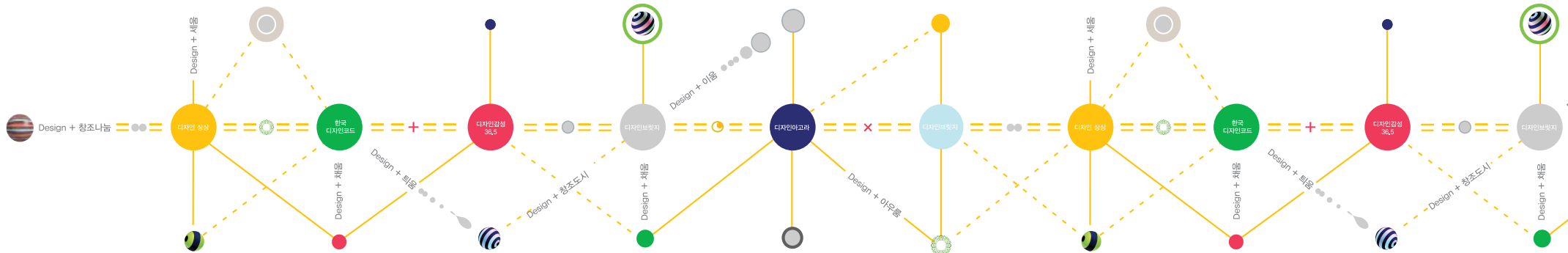
It is Gwangju's pleasure to host this year's event here. And through 'DESIGN KOREA 2013,' where people can share the latest design trends, I hope that Gwangju can leap forward to becoming a 'Design Hub for Asia,'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design industry and the 21st convergence era. Thank you.

장상근 JANG Sanggeun

한국디자인센터 원장 President, Gwangju Design Center

K-Design+ = 새로운 변화, 미래를 여는 힘

K- Design+ = New Changes Creating the Future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제3의 물결 끝자락에서, 창조시대라는 제 4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력, 기술, 정보 등이 국가나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창조시대는 창의력에 기반한 디자인, 콘텐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이 새로운 원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 창조시대를 열어갈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디자인코리아 2013]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디자인코리아 2013]에서는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디자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시작된 [디자인코리아]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코리아]를 통해 디자인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디자인이 산업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디자인은 창조입니다. 디자인은 경제입니다. 디자인은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디자인코리아 2013]은 이제 디자인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경제 부흥을 이끌어갈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주역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We are currently in the midst of a new change, witnessing the world change from the 3rd wave or the 'information era' to the the 4th wave, the so-called 'creative era,'

If labor, technology and information had been the key elements that led the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and societies, elements based on creativity such as design, contents, software and engineering are expected to become the new growth engine in the 'creative era.' Amongst such elements, experts agree that 'design' most definitely shall become the next growth engine that will lead the creative era.

'DESIGN KOREA 2013' will become a platform to seek the role and vision of design. Held for 4 days from October 10, 'DESIGN KOREA 2013'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those interested in design to obtain the knowledge, experience and confidence needed to lead the new future.

'DESIGN KOREA,' launched in 2003 to understand the current addres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ign industry and to propose its future direction, has contributed to sharing the latest global design trend and to promoting the excellence of Korean design. But the most important outcome of Design Korea would be that not only those engaged in the design industry but also the public agree that design is not merely an added value to industries but a vital element.

Design is creativity. Design is economy. Design is the force that creates the future.

'DESIGN KOREA 2013' will be opening a new decade in Gwangju, the city of art and culture. And it is without doubt that it will become an occasion to create added values, open new job opportunities and become a platform to confirm and declare that design is indeed the next growth engine of the creative economy era that will bring about economic revival.

디자인 코리아 2013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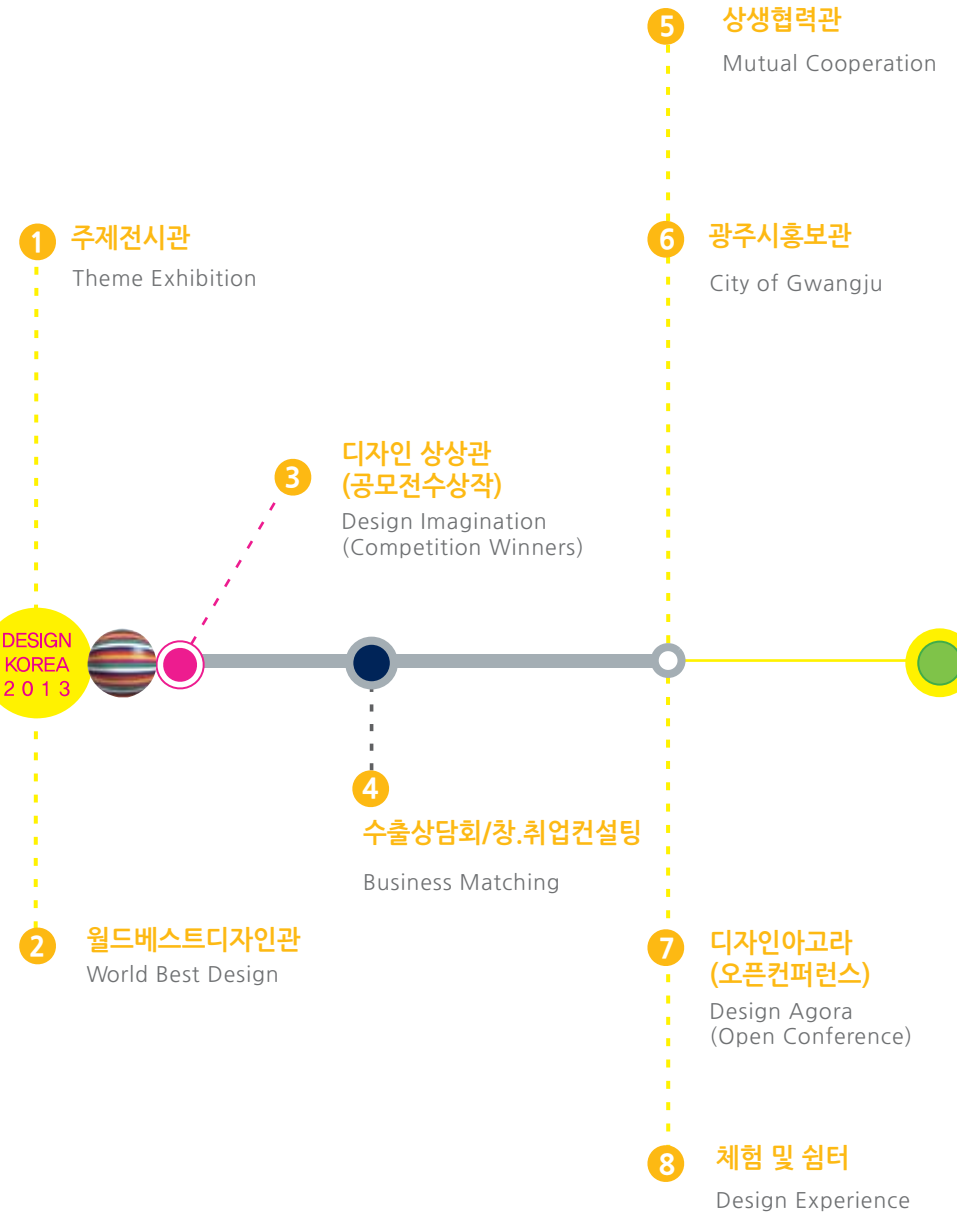
창조경제 시대의 디자인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주도하고,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뿐 아니라 디자인 주도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디자인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코리아 2013]의 전시회 역시 이러한 디자인생태계를 이끌어갈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8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K-Design+ = 새로운변화, 미래를 여는 힘을 테마로 한 주제관에서는 디자인 = 창조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음'을 테마로 수출상담회와 창.취업 컨설팅을 신설하고, '채움'이라는 테마의 해외 디자인 체험관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DESIGN KOREA 2013 Exhibition

Design in the creative economy era should not be limited to enhancing the value of a product but should become the driving force of this economy. Design not only initiates innovation and creates new values for its consumers, it also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design-oriented ecosystem where high value added design products and quality job openings are created.

'DESIGN KOREA 2013' is composed of 8 SUD-themes that will best show the design business process that lead such a design-oriented ecosystem. Under the theme 'K-Design+ = New Changes, Creating the Future,' the Theme Hall will prove that "design is creativity." Especially, this year, a new sub-event has been establishe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design companies to meet with buyers from Korea and abroad. DESIGN KOREA 2013 will also include various exhibitions and events where the public can experience design from Korea and abroad.



수출상담회/창.취업컨설팅

Business Matching

국·내외 우수디자인전문기업 및 1인창조기업의 아이디어를 해외 바이어들과 만남을 통해 공유하고 실질적인 수출로 연계하여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부가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The "Business Matching" allows leading design companies and one-person studios in Korea and abroad to share their ideas with design buyers to induce design export and to create added value to companies through design.

K-Design+ 이음 / K-Design+ Yieum

- 반밀폐형 상담공간 14ea
14 Consulting Rooms
- 인터넷 라운지 2ea
2 Internet Lounge

디자인상상관

Design Imagination (Competition Winners)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디자인수상작 공모전을 통해 인정받은 우수한 디자이너들과 예비 디자이너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의 무한한 상상을 더욱 더 키우고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Design Imagination" provides leading designers and next generation designers who have been recognized by the Korea Design Exhibition,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and Good Design Selection an opportunity to develop and realize their dreams.

- Good Design Selection
- Korea Design Exhibition
- Design Competition for the Youth

상생협력관

Mutual Cooperation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 중소기업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자, IT,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The "Mutual Cooperation" hall is a platform for SMEs, the core of Korea's economic growth, to enhance their brand value with their new products and design that display creative ideas.

체험공간 및 쉼터

Design Experience

전시장 곳곳에서 쉼터의 역할도 하며,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디자인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며 디자인 감성을 키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This hall allows the public to experience design through various activities.

- Special Exhibition on Public Design
- 1 Cafeteria

월드베스트디자인관

World Best Design

한국,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12개국의 world best design의 다양한 우수디자인을 통해 각 나라의 삶과 문화는 물론 세계인과 공감하고, 세계디자인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The "World Best Design" exhibition showcases the world best design products and trends of 12 countries including Korea, Australia, China, Germany, Japan, the Philippines, Vietnam, the USA, etc

- Leading design products from 12 countries

주제전시관

Them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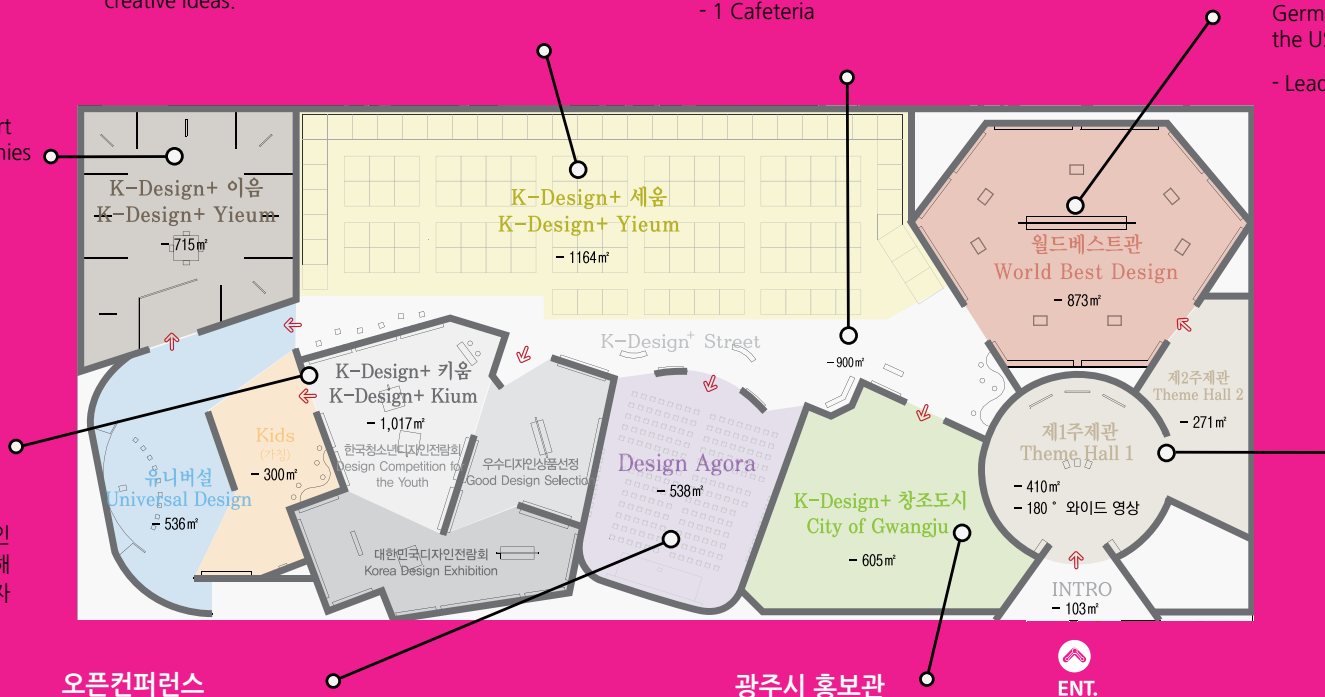
"K-Design+ = 새로운 변화, 미래를 여는 힘"
"K-Design+ = New Changes
Creating the Future"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혁신, 창조, 개방, 융합, 선도, 공유, 문화의 흐름을 새로운 변화의 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2013 디자인코리아의 주제('K-Design+ = 새로운 변화, 미래를 여는 힘')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이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디자인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The Theme Exhibition presents innovation, creativity, convergence, initiatives, sharing and culture of the new era through design.

Under the theme "K-Design+ = New Changes Creating the Future," this exhibition displays the power of design and the changes it will bring in the future.



오픈컨퍼런스

Design Agora (Open Conference)

‘공감, 소통, 나눔’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디자인 종사자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모두 참여하여 인문,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이슈들이 어떻게 디자인과의 결합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지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Under 3 themes of 'Sympathy, Communication and Sharing,' the conference will discuss how the main issues of our everyday lives such as humanity, economy, sociology, culture and industry meet design to improve and grow.

광주시 홍보관

City of Gwangju

광주시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광주시에 특화된 LED, OLDE산업으로 광주의 아름다운 빛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창조도시, 광주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The "City of Gwangju" exhibition displays Gwangju as a city that realizes creative economy with its outstanding LED and OLED industries, specialized industries that 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developing the design industry of Gwangju.

디자인 아고라(오픈컨퍼런스)

아고라(Agora)는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을 일컫는 말로, 오늘날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공간, 또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디자인코리아 2013]에서도 '공감', '소통', '나눔'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디자인 종사자와 디자인 전공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아고라'가 사흘간 펼쳐집니다. 인문, 경제, 문화, 산업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이슈들이 어떻게 디자인과의 결합을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 디자인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가야 할지 서로의 의견을 펼치고, 나누고, 공감하는 멋진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10. 11(금) - 13(일)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내

DESIGN AGORA (OPEN CONFERENCE)

The term 'Agora' refers to an ancient Greek plaza or central space, the birthplace of democracy. Today, it is often used to refer to a place for public communication or direct democracy, a place where many people gather to engage in discussions to share their opinions and ideas so as to seek new strategies for improvement.

Under 3 themes, 'Sympathy,' 'Communication,' and 'Sharing,' 'Design Agora' will be held for 3 days during 'DESIGN KOREA.' 'Design Agora' is open to those engaged in the design industry, students studying design as well as the public. It will be a platform to discuss how design shall resolve and improve key issues of our society such as humanity, economy, culture and industry, and to discuss details on the role those engaged in the design industry should play so as to seek how to enhance the design competitiveness of Korea.

Dates : October 11 (Fri) - 13 (Sun)

Place : KDJ Convention Center, Gwangju South Korea

1 디자인 공감 Design Sympathy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선구자인 멘토가 들려주는 디자인 이야기

Design stories from mentors, pioneers of the latest design trend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15:00~16:00

2013년 10월 13일(일) 13:00~14:00

Dates :

October 11, 2013 (Fri), 15:00 - 16:00

October 13, 2013 (Sun), 13:00 - 14:00

2 디자인 소통 Design Communication

취업 극대화를 위한 대학생 공모전 및 프리젠테이션 진행
디자인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소통

Communications on design trends and information for those seeking job opportunities in the design field

일시 :

2013년 10월 12일(토) 15:00 ~ 16:00

2013년 10월 13일(일) 13:00~14:00

Dates :

October 12, 2013 (Sat), 15:00 - 16:00

October 13, 2013 (Sun), 15:00 - 16:00

3 디자인 나눔 Design Sharing

명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디자인 릴레이 토크쇼 진행

Design relay talks by volunteer of celebrities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13:00~14:00

2013년 10월 12일(토) 15:00~16:00

Dates :

October 11, 2013 (Fri), 13:00 - 14:00

October 12, 2013 (Sat), 15:00 - 16:00

디자인으로 소통하기,
그리고, 하나되기

Communicate and
connect through design

2013 디자인의 밤 (2013 Design Night)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계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 공유,
그리고 참석자와 디자이너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13 디자인의 밤'이 개최됩니다.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경제·문화·예술·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질
'2013 디자인의 밤'은 디자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The '2013 Design Night' will be held to spread a design
culture, to share the new role that the design industry
must play in the new era, and to strengthen the network
of designers.

'2013 Design Night,' which will connect economy, culture
and art with 'design,' will be a festive time for all design lovers.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7:30~20: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Date : October 10 (Thur), 2013, 17:30 - 20:00

Place : KDJ Center, Gwangju, South Kore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1970년에 한국정부가 설립한 국가디자인 기관입니다. KIDP는 한국의 중장기 디자인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디자인시대에 부응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디자인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IDP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와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의 회원이며, 여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is the sole national design promotion institute in Korea, established in 1970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the design industry and increase export. KIDP establishes and executives Korea's mid- to long-term design policies. It also networks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globe. Especially, KIDP strives to further advance Korea's economy and better the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the design industry, which creates high added value, so as to meet the demands of the 21st century, an era of 'digital design.' KIDP is a standi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ommunication Design (Icograda) and has successfully organized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in Korea as well as abroad.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연구, 생산, 소비기능이 통합된 지역특화형 디자인 비즈니스 콤플렉스 센터 구현을 목표로 국토 서남권 디자인산업의 허브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디자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공급 수요분야 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 소스구축 등의 지역디자인센서스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1+2시스템의 애로디자인기술 지원단 및 운영사업 지역특화 디자인 상용화를 위한 지역 역량 및 산업의 기반 지원 사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시스템의 디자인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LED 조명디자인 사업화 전략 포럼 사업, 지역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wangju Design Center

Gwangju Design Center, aiming to be a locally specialized design business complex center in which design research,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united, has continued to improve local industries as a hub of design industry, develop design capability, spread design culture and establish a design industry innovation cluster. It is also running local design census business such as establishing database for education organizations in the design supply and demand fields, difficult design technology supporters of 1+2 system to create jobs and support companies, supporting local capability and industrial foundation for locally specialized design commercialization, Design technology supporting center with various cutting-edge system to build from creative ideas, LED light design commercialization strategy forums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nd running support system to promote local design industry.

